

# Mimesis 이론 기반의 무용교육방법론 탐색

## - Paul Ricoeur의 삼중 미메시스 이론을 중심으로 -

이병준\* · 이유리\*\*

- |                        |                          |
|------------------------|--------------------------|
| I. 들어가며                | IV. Ricoeur의 삼중 미메시스를 적용 |
| II. 무용교육방법: 대상과 교수학습방  | 한 무용교육 방법의 가능성           |
| 법의 관점에서 분류             | V. 나가는 말                 |
| III. 제도적 무용교육방법의 접근: 창 |                          |
| 조적 재현과 모방적 재현          |                          |

### I. 들어가며

오늘날 무용교육은 예술의 범위를 넘어 신체를 통한 내면적 표현과 개인의 자아성찰에 이르는 방법으로서 확장된 문화적 인식의 개념으로 통용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전과는 달리 인간의 삶이 사물과 타인과 어떤 관계성을 가지게 되는지를 무용교육의 새로운 방법을 통해 제시해야 할 시대적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전문적인 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과 일상생활 속의 시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예술과의 경계의 모호함으로 인해 기존의 무용교육의 방법적 접근과는 다른 교육학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무용교육은 학습자를 무용을 통한 경험의 과정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자아정체성 향상에까지 이르게 하는 광범위한 해석으로까지 확장된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정부가 추진하는 문화예술

\* 주저자,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교신저자,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 교육학과 BK21 플러스 연구원, leepop74@hanmail.net

교육의 제도화를 통하여 일반인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사회 문화적 공간을 통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용교육에 대한 도전은 기존의 무용교육과의 차별화의 문제이다. 그 차별성은 기존의 무용교육방법 패러다임에 대한 새로운 시도로 드러난다. 무용교육이 단순히 인간의 행동의 변화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잠재력과 심리적인 변화까지 추구한다면 무용교육은 새로운 방법론을 수용해야만 할 것이다. 무용을 통한 교육은 인간의 상상력을 무한히 개발하고 창의적인 세계로 안내하며 균형 잡힌 생활로 인도하는 조화적인 인간성의 발달을 꾀하는 프로젝트이다. 무용교육이 추구하는 바는 인간이 문화를 수용하고 삶을 예술적으로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하는 문화적 인간 형성에 있다. 문화적 인간이란 문화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문화를 이해하고 관조하는 능력과 문화를 창조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런 맥락에서 미메시스(Mimesis) 이론은 무용교육방법 담론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진다. 미학적 논의에서 그간 모방으로 격하되었던 미메시스 개념은 여러 학자들의 논의를 거쳐 최근 새롭게 해석 되면서 부활을 맞이하고 있다.<sup>1)</sup> 즉 미메시스 개념은 단순한 모방이 아닌 모방과 변화를 동시에 포함한 개념으로 새롭게 해석된다. 미메시스는 개인들에게 직접적인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경험들을 재결합 시켜주고 개인들에게 독특한 양식으로 창의적·직관적으로 작동한다.<sup>2)</sup> 특히 미메시스는 인간의 인식과정이 신체적 활동과 연출하는 연행적 활동에 연동하여 생겨나는 것에 주목한다.<sup>3)</sup> 이런 점을 미루어 보아 무용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수학습방법은 연행적인 퍼포먼스로 미메시스의 과정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자의 경험적인 움직임 기법이 학습자에게 어떠한 과정으로 습득되어지고 재형상화 될 수 있는 지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미메시스적 과정은 단순히 가르치는 자의 언어뿐만 아니

1) Gebauer, G. & Wulf, Ch.(1996), *Mimesis: Culture-Art-Societ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34.

2) 이병준(2013), 문화인지와 문화적 학습의 이론적 모델에 대한 연구: 크리스토프 볼프(Ch. Wulf)의 이론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연구』 8(1), p.8.

3) Gebauer, G. & Wulf Ch.(1996), p.45.

라 비언어적인 행위까지 연관된다. 이때 무용교육방법에 있어 학습자에게 기술과 지식을 전수하는 과정에 있어 학습자는 기술은 물론이고 가르치는 자의 스타일, 연습방법, 삶의 방식까지 따라함으로서 미메시스적 학습과정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미메시스 과정을 촉진하는 교육방법은 초보자교육에 있어서는 좋은 교육 방법인 것이다. 미메시스에 의한 학습은 학습자의 창의적인 해석에 기반 하여 개인의 자율성과 또 다른 새로운 움직임의 해석법을 전유하게 도와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현행 문화예술교육의 제도권에서 새롭게 제공되고 있는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 차원에서의 무용교육을 두 가지 재현적 방법으로 분류한 후 미메시스의 개념들이 무용교육방법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핵심적인 개념으로 인정하고 미메시스 개념의 무용교육방법에서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의 해석학자인 Ricoeur의 미메시스 이론에 기초한 무용교육방법론의 담론 구성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는데 Ricoeur의 삼중 미메시스 이론은 학습자들이 무용교육을 통하여 어떻게 미메시스적으로 학습하는지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석틀이라고 보여 진다.

## II. 무용교육방법의 분류: 대상과 교수학습 방법적 관점

### 1. 대상적 분류에 따른 무용교육방법

#### 가. 아동대상

아이들에게 놀이는 모든 활동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행위를 관찰하고 모방하는 과정에서 창의적인 발상을 하고 또래 집단과 놀이를 통한 표현 활동으로 관계성을 맺는다. 이런 과정에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 간다. 이때 놀이를 매개로 이야기를 구성하고 자신들만의 움직임을 춤추기로 표현하면서 또래집단과 상호작용한다. 아동기에서부터 무용의 경험된 지식은 성인이 된 후 부정적인 측면보다 반성적인 면으로 긍정적으로 변화되어 가

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용을 통한 경험은 신체를 통해 자기표현활동과 더불어 창의적인 사고의 확장으로 타인과의 관계성에서 실천적인 무용교육 형태로 접근하게 된 것이다. 무용은 아동들의 창의성교육을 목적으로 무용을 쓰고, 그리고, 춤추기를 통해 지성적, 감성적 능력을 배양한다. 이때 무용을 체험하고 놀이로 듣고, 따라 하기를 통해 감상체험학습 방법으로 감각 깨우기를 하면서 모방적 교육방법이 생긴다. 이런 방법을 통해 자기 주체적으로 이미지를 연상하여 상상적인 사고를 하는 인간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예술적 매체를 통한 움직임은 이미지표현의 기능적 학습을 하며 감성적 능력과 예술적 심미성을 이해시키고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 나. 일반성인 대상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용교육은 기존의 관념을 바꾸는 사회적인 패러다임의 형태로 무용의 일반화, 대중화로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넓게는 무용을 통한 치유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는 확산이 되고 세대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런 무용교육은 일반인들에게 문화예술의 창작 기회와 체험을 제공하고 무용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자존감을 형성한다. 이로써 인간이 주체성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사회의 공동체에서 자유로운 취향과 성향으로 자신의 주체성을 찾는 것이다. 예술 활동을 통해 가상적인 경험은 성인 그 자신의 감수성 개발과 미적 경험으로 행복한 자아를 찾을 수 있다. 교육적 행위는 인간이 미성숙 단계에서 성숙 단계로 끌어주는 행위로 본다면 무용교육을 통한 자아의 성숙은 실천적으로 경험하면서 배우는 행위로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sup>4)</sup> 현재 일반 성인들이 무용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는 복지관, 평생교육원, 문화센터,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하여 개인의 취향으로 선택하여 일정기간 학습하게 된다. 이때 교육방법으로는 신체를 익히게 하는 기본 스트레칭 수업과 미적체험활동으로 기존의 작품을 패러디하는 방법으로 전통성 유지 보다는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정 된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건강한 삶을 유지 하고 기존의 틀에

4) 이병준(2006), 예술교육에 대한 교육학적 고찰, 『미술교육논총』 20, p.10.

엄매이지 않으며 개방성을 갖는 것이다. 이때 교육 방법으로 개인과 집단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로 적극적인 자기표현 수업으로 이루어진다. 이로써 무용창작의 교육범위는 구분 없이 신체를 자유롭게 표현하며 심리적인 틀에서 벗어나는 해방감을 갖는다. 그리고 전통적인 발레동작이나 간단한 마임과 함께 몸을 인식하고 커뮤니티 댄스로 공동체가 실천적인 방향으로 공연무용에서 참여무용으로 변화되는 무용교육방법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 다. 전문가 및 예비 신입생 대상

무용을 전공하고 전문적인 학습을 통한 무용가나 예비 신입생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회체제와 달리 개인의 선택적 과정에 의한 것으로 그 전문성에 대해서는 다른 과정과 변인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개인이 동작을 익히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일정 기간 전문 교사에 의해 코칭을 받게 된다. 즉, 무용을 통해 무용인으로 전문적인 언어, 규범, 태도, 역할 등은 집단에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서 습득되는 것이다. 이 과정을 교육학적 측면으로 말하자면 배경적 지식이 없는 신입생들이 전문 강사와 선배들의 무용시간에 연습하는 행위를 관찰하고 복장이나 스타일을 따라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무용교육방법과정에 의해서 미메시스가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초보 무용수와 경력 무용수는 무대 위에서 공연되기 전까지 각자의 역할 수행을 위해 연습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서 생기는 행동양식을 획득함으로써 역할간의 상호작용과 미메시스 과정이 일어나는 것이다.<sup>5)</sup> 이는 무용교사나 선배무용수들의 강화와 코칭의 방법에서 즉각적인 모방이 아닌 재해석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무용교육의 한 방법으로 보인다.

## 2. 무용 교수학습방법으로의 분류

### 가. 무용 감상 및 비평을 통한 무용교육방법

관찰하는 능력과 이를 통해 얻는 정서적 성취는 예술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

5) 김영미(2010), 무용참여 확대를 위한 무용 사회화 연구의 방법과 방향, 『한국무용과학회』 21, pp.11-13.

한 부분이다. 감상의 과정은 예술교육에 있어서 창조나 제작과는 다른 개념으로 지각과 인식을 통한 미적 체험의 길로 인도한다. 따라서 이러한 수용 미학적 행위는 무용교육에 있어 매우 기초적이며 중요한 토대를 제공하는데 감상행위는 공연을 관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공연관람은 제3의 인물을 구상하여 자기를 투영하는 방법으로 상상력을 풍부하게 한다. 따라서 무용관람의 기회가 많은 사람일수록 간접적인 정서적 경험을 통해 풍부한 감성을 체득하게 되어 관람의 기회가 많은 사람일수록 다른 예술공연을 관람하는 기회도 많아진다.<sup>6)</sup> 무용공연 관람은 개인마다 다양한 방법의 체험학습 형태로 인간관계 유지, 친목도모, 자아실현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무용감상의 특징은 역사적·문화적 맥락을 이해하여 내면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공연을 필터링한 다음 감성을 촉발시키고 타인과의 관계성을 이해하게하는데 있다. 즉, 작품을 감상하고 타인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사고확장을 통해 사고가 정체됨을 방지한다.<sup>7)</sup> 감상을 통해 개인의 생각과 타인의 의견을 공유하면서 친밀감을 느끼고 공간에 대한 인식의 확장이 나아가 비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개발되기도 한다. 또한 무용감상은 미적인 정서와 흥미로운 상상력을 증진시켜 자신의 사고를 논리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미적성찰의 방법이며 문화역량의 중요한 하나의 요소이다.<sup>8)</sup> 무용감상에 비해 무용비평의 과정은 보다 능동적인 학습방법으로 볼 수 있는데 한 개인의 비평적 사고능력은 예술작품의 본질에 대한 주체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비평적 사고는 좋은 무용작품을 볼 수 있는 능력의 기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훌륭한 창작활동의 토대가 되기도 한다. 특히 시민들의 무용비평능력은 양질의 무용창작문화를 조성하는데 장기적으로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무용감상과 무용비평은 이성과 감성의 조화와 균형을 지향하는 중요한 무용교육의 영역이다.<sup>9)</sup>

6) 김혜정·정은주(2010), 일반인의 무용공연 관람동기가 정서경험과 무용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과학회』 21, p.10.

7) 김현주(2009), 통합적 방법을 적용한 무용교육의 발전적 제한: 교수, 학습 전략을 위한 방향 제시 및 모형 구축, 『대한무용학회』 59, pp.346-347.

8) 이병준의(2010), 『문화역량과 문화예술교육』(서울: 교육과학사), p.383.

9) 김현주(2009), p.348.

### 나. 예술적·미적 지식전달을 통한 무용교육방법

무용교육의 방법에는 신체를 통한 실천교육이 아닌 이론적 지식을 학습하는 방법도 중요한 영역으로 간주된다. 무용을 통한 인식은 형상에 대한 기억으로 감성이 자극되어 작품활동에 보충이 되는 이차적 사유 활동의 단계이자 방법이다. 무용을 통해 상징화하는 이론작업은 무용에 대한 지식화를 통해 무용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한다.<sup>10)</sup> 무용의 문화와 역사적인 사실의 전달은 체험학습과 더불어 주로 이론학습을 통한 교육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이론학습은 미학적 접근으로 철학자들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의 근원적 창조성에 대한 방향을 논의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신체와 움직임, 신체의 연행성에 대한 철학적, 미학적 연구는 담론의 내용과 형식이 변화함에 따라 무용에 대한 이론적 구성도 달라진다. 미와 예술의 개념을 역사적으로 분류하여 시대에 따라 철학적 시도들이 끊임없이 변화함에 따라 미학의 연구도 끊임없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무용교육은 미학을 근거로 일상생활 속에서 그 의미를 이해하고 본질의 직관과 미적 체험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무용적 지식을 전달하는데 목적을 둔다.

### 다. 공연을 통한 무용교육방법

우리가 예술적이라 부르는 행위는 대체로 연행적 행위, 즉 공연을 통해 연출되어진다. 무용교육 방법으로서의 공연은 참여자들의 활동과 역할수행이 수반되며 그 과정에서 학습과정이 일어난다. 무용에서의 연행성과 연출의 의미는 공연자와 관객, 공간에서 일어나는 그 관계성은 매번 다른 의미로 새롭게 일어난다는데 있다. 여기서 무용공연을 연출하고 공연 그 과정에서 공연자와 관객 모두가 경험하는 연행성에 기반한 예술적 체험과 학습은 텍스트를 통한 학습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법의 형태로 생겨난다.<sup>11)</sup> 무용공연은 작품으로 완성되어지는 생산의 과정과 수용의 조건으로 제공된다. 이때 무용공연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공연자와 관람

10) 한혜리(2005), 무용인식의 구조와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16, p.203.

11) 이병준(2007), 연출과 퍼포먼스연구에서 바라보는 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연구』 2(1), pp.103-104.

자의 관계성이 발생한다. 대학에서 무용을 전공하는 학생과 전문 무용수들은 그들이 참여하는 작품이 무대에 공연되어지기 위해 많은 연습과정과 리허설 과정을 가진다. 이때 개인은 자기 생산적인 시스템으로 신체를 통한 연행성을 생산해내는 동시에 완성된 작품이 공연 되어지는 공간에서 관객의 미적 체험에까지 영향을 준다.<sup>12)</sup> 문화예술을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남에 따라 일반인들 또한 공연을 체험하면서 또 다른 의미부여를 하고 자아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아동기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공연을 통해 무용적 연행성을 체험하고 학습한 사람일수록 신체적으로 기호학적으로 표현된 사회를 바라보는 다면적인 사고의 확장이 가능하다. 아동들이 공연관람 후 표현활동을 통해서 무용을 학습하는 방법은 그들의 상상력과 창의성이 무용을 통한 예술교육을 통해서 얼마나 풍부해지는 지를 보여주는 실례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기존의 작품을 패러디하는 방법으로 일반인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작품의 재해석이 생겨나고 있는데 개인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어보고 무용의상, 분장, 조명, 연출 등을 해보면서 그 공간에서 맡은 역할을 통한 대리해석의 과정을 통하여 연행적 경험을 하게 된다. 이로써 경험된 예술은 개인의 심리, 정서적 측면 까지 영향을 미치고 무용과 관객과의 소통을 통해 개인의 기억 속에 자리 잡게 되며 개인을 미적으로 성숙된 발전으로 이끈다. 예술교육의 이론적·실천적 연구에서 핵심이 되는 연행성과 연출은 예술교육에서 새로운 담론으로 등장하고 있다.

### Ⅲ. 제도적 무용교육방법의 접근: 창조적 재현과 모방적 재현

최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무용에 기반을 둔 예술교육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의 차원에서 실행되고 있는 무용교육은 그 나름대로의 무용교육방법적 기준에 입각하고 있는데,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무용교육은 그 방법적 접근에 큰 차이를 보인다.

12) 앞의 글, p.110.



하나는 창조적 재현에 다른 하나는 모방적 재현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분류가 가능하다.

### 1. 창조적 재현 학습

재현의 의미는 이미지의 실재를 드러내는 과정을 모방이나 복사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현상의 본질을 재현하는 재창조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창조적 재현 학습은 무용이라는 매개를 통하여 학습되고 재현의 의미를 갖는다. 이때 무용교육은 감각적인 신체 표현에서의 창의적인 사고를 발현 할 수 있는 매개체의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학교문화예술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무용교육은 초등교육에서부터 중등교육까지 체육교과와 재량활동 범위에서 무용의 이론적 배경지식과 창작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에 체육교과에 편중되어 있었던 무용교육을 보완하면서 외부 전문가들의 교육방법을 통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져 왔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무용교육을 통해 수동적인 문화의 소비자가 아닌 문화의 창조자로 성장하며 긍정적인 모습으로 사회와 소통할 기회를 갖는다.<sup>13)</sup> 초등교육에서부터 무용을 통한 체험과 탐색과정은 중등교육에서는 무용교육을 통한 학습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환경과 문화를 이해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게 된다. 무용교육에 있어 창작활동은 새로움을 익힐 수 있게 하며 기존의 것을 또 다른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 내게 함으로 미메시스적 능력을 함양시킨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학습자로 하여금 무용교육을 통해 전문무용수가 되기 위한 훈련처럼 기술을 습득하는 교육이 아닌 신체를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교육방법으로의 전환을 가져온 것이다.<sup>14)</sup>

창의적 표현활동은 자연과 사물에 대한 의미부여가 개인마다 다르게 발휘되어 신체를 통한 움직임의 다양한 경험을 가지게 한다. 이러한 방식은 자연을 그대로 모방하는 전통적인 패러다임이 아니라 창조성에 기반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도

13) 정희자(2012), 사회적 소통을 위한 무용예술교육 현황 및 사례 분석연구, 『예술교육연구』 10(2), p.86.

14) 한혜리(2011), 예술통합 무용교육 방법론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22, p.24.

이해될 수 있다. 무용을 통해 학습되어지는 것은 이론적 학문의 경계를 넘어 상상력이 발휘되고 개인의 독창적인 표현으로 타인과의 협동능력을 생기게 한다. 또한 개인의 문화에 대한 기억이 재창조되어지고 잠재되어 있던 것을 표면으로 드러나는 작업은 창조적 재현학습의 전형적인 형태에 속한다. 이때 개인의 기억들은 다양한 인공물로 드러나며 상상력을 자극하고 표현된다. 특히 기존의 사유구조가 해체 되면서 비언어적인 감각들이 구성물로 놓이고 창의적인 사고로 확장되는 것이다. 이것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표면화시키는 창조적 재현학습이다. 이러한 교육방법은 심층적 표현과 더불어 사물에 대한 인식과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적 사유능력의 발전으로 이끈다. 이것은 무용교육에서 창조적 재현학습이 어떤 표현으로도 재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2. 모방적 재현 학습

인간은 모방을 통해 학습하며 지식이 습득되는 과정에서 쾌감을 느끼며 따라하는 것을 통해 학습한다. 사물과 환경을 모방하는 것은 배우는 행위로서 행동을 따라하고 흉내 내는 과정에서 개인 스스로의 학습방식이 자리 잡게 된다. 무용교육에 있어 기성 전문가들의 표현과 기술을 초보자들이 학습할 때 그 전문가의 느낌과 이미지를 똑같이 표현 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학습자들에게 전유되는 과정 속에서 모방을 통해 그리고 자기만의 창작과정을 통해 재현되어진다. 2007년부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아동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장애인, 다문화가정, 소년원,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기타 사회 취약계층 등의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대상들에게 예술적 경험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기반시설과 연계하여 많은 예술문화 단체들의 참여를 통해 사회와 소통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데 이런 노력들은 무용을 통해 계층과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서로 상호유대감을 표현 할 수 있도록 이끈다. 이때 무용의 창의적 체험활동은 치유의 목적을 가진 예술교육방법으로 다가가게 된다.<sup>15)</sup> 예술에서 모방은 기존

15) 정희자(2012), p.87.

의 작품을 복사하는 개념으로 부정적인 측면이었다면 현대에 이르러 모방은 창조적 모방으로서 미메시스라고 불린다. 무용교육에서 모방적 재현학습은 신체를 통한 표현 학습으로서 가르치는 자의 지도아래 동작들이 구성되어지고 작품으로 만들어진다. 이때 무용을 가르치는 자의 시범으로 재현되어지는 동작들이 학습자들에게는 모방을 통해 또 다른 재현이 일어나게 된다. 즉 모방적 재현학습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Mollenhauer는 재현을 매우 중요한 교육학적 범주로 설정하였고 보여주기를 교육적 행위의 원형으로 인식하였다.<sup>16)</sup> 여기서 재현적 보여주기는 교육적 행위로 모방을 통하여 주체와 학습자를 만나게 해준다. 교육학적 관점에서 재현적 보여주기는 문제에 대한 새로운 소통방식의 제시이며 새로운 문제해결 방법을 드러내는 것이다.<sup>17)</sup> 같은 맥락에서 무용의 재현은 비재현의 형태로 원본을 모방하면서 학습하게 하는 교육방법을 취하는데 교수자의 신체동작을 학습자가 동작을 익히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 속에서 모방적 재현이 생겨난다. 그렇게 현실화되고 실천적 표현이 된 작품은 자신의 또 하나의 잠재력이 되는 것이다. 그 안에서 교수자는 다양성의 세계를 연구하고 자신의 방법을 찾아가며 학습자로 하여금 작품을 체험하게 한다. 이러한 체험활동은 개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가족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힘쓰는 계기가 된다.

## IV. Ricoeur의 삼중 미메시스를 적용한 무용교육방법의 가능성

### 1. Ricoeur의 행동의미론

인간은 인공물(artifact)을 통해 외부와 서로 관계성을 맺게 되는데 이 과정을 미메시스 과정이라 부른다. 미메시스는 이론과 실천으로 개인과 세계를 연결하는 상징적 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행동하는 대상을 모방하고 재현하는 모든 것들은

16) K.몰렌하우어(1983), 『가르치기 힘든 시대의 교육』(서울: 삼우반).

17) 이병준(2011), 교육적 범주로서의〈전시행위〉에 관한 이론적 탐구, 『문화예술교육연구』 6(1), p.6.

모두 미메시스적 움직임으로 간주할 수 있다.<sup>18)</sup> 이러한 과정을 체계적으로 잘 설명한 학자로는 프랑스학자인 Paul Ricoeur를 들 수 있는데 Ricoeur는 행동을 재현하는 사건들의 이야기를 구성하여 줄거리 형식으로 배열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인간의 의식적인 수준에서 자아성찰의 단계로까지 이르게 하는 것을 행동의 의미과정과 연관시켜 이해하였다. 흔히 미메시스 개념은 Platon과 Aristoteles부터 모방과 재현의 의미로 논의되어져 왔다. Platon은 모방은 환상이며 이데아에서 멀어지는 단계로 부정적인 측면에서 설명하는 반면, Aristoteles는 모방을 재현의 의미로 인간의 타고난 본성과 행동으로 보았다. 그 후 Dupont-Roc et Lallot에 의해 재현의 의미는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는 미메시스를 ‘모방하다’에서 ‘재현하다’로 재현된 것과 재현한 대상을 동시에 가리키는 이중의 의미로 보았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미메시스를 창조적 모방이라는 개념으로 해석한 Ricoeur는 단순한 모방에서 벗어나 새로운 존재론적 의미를 갖게 된 것은 이런 논의를 거쳐 개념화 된 것이다.<sup>19)</sup> Ricoeur는 미메시스 과정을 인간의 시간적 경험을 형상화하고 재현하는 과정, 즉 창의적 학습의 과정으로 보았다. 그는 인간이 경험적 사고를 재현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자아정체성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인간의 전반적인 창조행위에 있어 미메시스의 역할은 핵심적 요소에 속하며 결코 간과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의 행동은 서로 상징적인 체계로 이루어지기에 이 상징적 매개는 문화적 성질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행동의 기초를 이루는 상징으로 구별 지을 수 있다. 이때 상징성은 정신과 행동을 포함하며 사회적 관계성 속에서 개인과 타인의 행동을 해독할 수 있는 의미로 설명되고 행동에 내재하는 해석체로 볼 수 있다.<sup>20)</sup> 이런 점에서 행동은 규칙과 규범적 의미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텍스트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18) U. 플릭(2011), 『질적 연구방법』, 임은미 · 최금진 · 최인호 · 허문경 · 홍경화(역)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0). p.76.

19) 김한식(2009), 미메시스 해석학을 위하여, 『불어불문학연구』 79, p.158-160.

20) P. 리피르(2012), 『시간과 이야기 1』, 김한식 · 이경래(역)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4). p.135.

Ricoeur는 개인은 자아정체성의 문제를 반성적인 주체의 의미를 가지고 독자적인 자아의 이해보다 문화적, 상호 주체적 관계 속에서 자아를 이해한다. 이는 인간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타자와의 상호관계성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의존적인 존재로 파악한다.<sup>21)</sup> 나아가 자아의 개념은 타자성과 사회성에 관련이 있으며 신체적, 언어적 조건들은 자아를 이해하기 위한 매개체인 것이다. Ricoeur의 자아해석은 말하고 행동하는 두 가지 면에 집중하면서 미메시스 개념을 해석하고 특히 사고의 주체만이 아닌 행동의 주체로 신체를 통한 자아정체성의 개념으로 표현한다. 그는 인간 행동의 해석을 개인의 삶과 경험된 지식들이 행동과 시간적 영역에서 수행되어지는 과정으로 재현한다. 행동의 재현은 단지 허구만이 아닌 은유적, 윤리적 기능까지 포함하며 실천적 측면까지 고려한다. 여기서 인간의 행동은 의미적으로 창조적인 모방의 형태로 어떤 것을 재현하고 만들며 구조화하는 것까지 해석학적 순환의 과정으로 설명되며 이는 매우 독창적인 발상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재현의 행위를 통해 인간은 창조의 즐거움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sup>22)</sup> 예를 들어 팔을 드는 동작, 인사하거나하는 제스처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지는 것으로 그 행동은 상징적인 특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인간의 행동에서 상징적인 특징까지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행동의 실천적 영역은 암묵적인 현상까지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 암묵적인 현상은 상징적인 매개물을 통해 아포리아를 해결하고 인간의 행동의미 연구의 확장으로 까지 이루어진다. 이런 맥락에서 Ricoeur의 행동의미론에 기초한 삼중미메시스 모형은 무용교육에서 신체를 통한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무용교육방법에서의 가리치는 자와 학습자간의 학습형태를 설명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2. Ricoeur 삼중의 미메시스

미메시스는 단순한 모방, 복사가 아니라 창조적인 모방의 형태로 보여지는 것

21) 강미량(2012), 관계적 자아 정체성 개발을 위한 리피르의 Narrative 정체성 이론 연구, 『기독교 교육 논총』 33, p.328.

22) 김한식(2009), pp.166-167.

을 말한다. 따라서 현실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재인식하는 과정으로 파악할 때 Platon적 의미가 아니라 Aristoteles의 의미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Platon은 미메시스를 예술에 표현하며 단순히 자연을 복제하는 것으로 비난하고 가치가 없다고 보지만 Aristoteles는 미메시스가 쾌락과 인식의 확장까지도 의미 있게 해석된다고 하고 있다.<sup>23)</sup> 이에 미메시스는 개인과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매개할 수 있는 인공물로 무용교육학적 측면에서는 방법적 도구로 적용가능하다. 미메시스와 관련하여 Ricoeur는 Aristoteles적 해석의 전통을 따르고 있으며 실천적인 면에 치중하면서 그 맥락을 유지하고 있다. Ricoeur는 이야기를 텍스트와 독자의 해석학적 사유를 통해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삼중의 미메시스’ 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삼중의 미메시스란 전형상화, 형상화, 재형상화를 통한 미메시스 과정을 지칭한다.

인간의 행동은 중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일종의 상징이다. 인간의 표면적인 행동을 통해서 의미를 모두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상징을 통해서 인간 행동의 의미를 유추하게 된다. Ricoeur는 행동의미론에서 인간의 행위는 시간과 이야기를 통해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야기 속의 줄거리는 인간의 경험을 언어화시켜 외부와 만나게 하는 매개체로 그 가운데에서 삼중의 미메시스 단계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미메시스 단계에서 인간의 경험적 행동은 실제와 허구 속에서 모두 일어날 수 있다. 즉, 이를 구체화시키고 구성적 줄거리로 만드는 가운데 이야기를 풀어 다양한 해석들을 탐색하게 하는 과정으로 미메시스가 나타나게 된다. Ricoeur는 미메시스가 인간의 삶과 세계를 행동의 상징적 결합 형태로 이야기 될 수 있는 역량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그것은 구조적, 상징적, 시간적인 특성 속에서 파악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sup>24)</sup> 이를 무용교육학적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신체성을 포함하는 미메시스는 ‘무엇을’ 재현하는가에 대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재현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제공해준다. 이는 무용교육방법이 지식과 기술의 습득만이 아니라 학습자의 자아형성에까지 영향을 미

23) 윤성우(2004), 미메시스, 재현 그리고 해석, 『해석학연구』 14, p.223.

24) P. 리피르(2012), p.129.

치게 되며 행동의 구조전환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따라서 무용 교육방법의 기획과 적용에 있어서 미메시스적 습득과정은 신체성과 연행성의 특성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Ricoeur의 삼중적인 미메시스 단계는 문학적 이론의 연장선상이 아니라 해석학적 이론의 기초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더 옳을 것으로 생각된다. Ricoeur이론에 기초하면 단순히 모방하는 것에서 부터 벗어나 재현되어지고 표상되어지는 현실적인 측면까지 고려하며 현상을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무용교육에 있어 미메시스적 전환은 가르치는 자의 경험적 지식과 학습자의 모방적 행동으로 하여금 재현적 의미를 경험하게 한다. 즉 행동을 모방·재현하는 것은 인간의 행동의미론에 있어 상징성과 시간성이 어떤 관계인지를 미리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모방 이전의 행동의 상징성은 시대별·문화별 차이까지 동반되는 것으로 다양한 재현적 학습의 표현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Ricoeur는 인간 행동의 과정을 삼중의 미메시스 과정으로 설명한다. Ricoeur는 행동이 어떤 모방적 과정으로, 어떠한 전이 단계를 거치면서 창의적인 학습의 형태로 변화하는지를 3단계의 미메시스과정으로 해석한다. 미메시스 I단계는 인간의 행동, 미메시스 II단계는 인간 행동 모방, 미메시스 III단계는 모방의 재현으로 요약 설명할 수 있다.<sup>25)</sup> 미메시스 I단계는 인간 행동을 먼저 선(先) 이해하는 형상화되기 전의 준비단계이다. 미메시스 II단계는 인간의 행동을 모방하고 형상화 시키는 단계이



〈그림 1〉 Ricoeur의 삼중의 미메시스 단계

25) 정인서·정진철(2008), 조직 내 인간행동의 미메시스 현상과 합리성에 관한 소론, 『한국인사관리학회』 2, p.167.

다. 마지막으로 미메시스 III단계에서 인간의 행위를 재현하고 해석하는 것으로 재형상화 단계를 다. Ricoeur는 인간의 행위가 구조적인 개념 망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 보고 미메시스적 과정을 거치는 인간의 행위가 구조적이라 해석한다.<sup>26)</sup>

Ricoeur의 삼중 미메시스 단계를 무용교육 방법론에 적용시킬 경우, 미메시스 1단계는 가르치는 자의 경험적 지식과 기술들이 학습자에게 보여지는 전 형상화된 단계로 이해 될 수 있다. 미메시스 2단계는 학습자가 가르치는 자의 행동과 신체적 표현 및 스타일등을 그대로 모방하는 단계로 파악 된다. 미메시스 3단계는 학습자의 재형상화 단계로 학습자 스스로가 움직임에 대한 독자적인 움직임해석을 하는 모방의 재현단계이다. 이로써 삼중의 미메시스 단계를 거치는 무용교육 방법은 가르치는 자의 일정한 참여와 개입 속에서 창의적인 결과물이나 하나의 작품으로 탄생하여 가르치는 자와 학습자 간의 창의적인 의사소통 과정을 이끈다. 이와 같이 무용은 비언어적인 표현활동으로 감정과 열정까지 모방하는 의미적 활동으로 하나의 창의적 표현활동을 이끌어내는데 목적을 둔다. 이것은 무용교육이 다른 교육과는 다르게 모델을 모방하고 학습하는 방법에서 전체적인 문화를 학습하고 배우게는 과정, 즉 미메시스 과정을 주목해야함을 알려준다.

## V. 결론

무용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문화양식 중의 하나로 존재해 왔다. 이러한 무용은 신체를 표현의 도구로 하여 동작의 완벽성을 추구하면서 형성된 예술의 한 형태이다. 역사적 발전에 따라 문화예술의 한 장르로써 무용은 정서적 감흥은 물론 신체활동을 통해서 각 기관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다른 문화와 세계를 만날 수 있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무용은 사회와 소통하고 세계를 만나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무용교육을 방법적으로 적용하는 문제는 어떻게 학습자와 학습자의 세계를 신체성과 연행성을 통해 연결하고 소통할 것인지의

26) 윤성우(2004), p.228.



문제와 연결되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무용교육방법을 미메시스적 방법론과 연계하는 논의는 무용교육실천에서의 몇 가지 중요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첫째, 무용교육방법은 우선적으로 대상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인간은 여러 가지 형태로 예술적 경험을 하는데 그 예술적 경험은 단지 즐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아형성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미적경험들은 일상에서 발달단계에 따라 다양하게 생겨난다. 특히 아동기의 미적경험은 성인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 타인과의 관계성을 원활하게 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된다. 노년기의 미적 경험은 아동기와는 다르게 삶의 관조와 함께 생활세계 속에서 깊숙이 이루어진다. 무용교육의 대상에 대한 깊은 이해는 무용교육방법을 구범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렇듯 무용교육을 통해 생성되는 미메시스 과정은 발달과정에 따라 조금은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둘째, 무용교육방법은 다양한 형식을 통하여 지식적으로 신체적으로 감상적으로 그리고 비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람들은 무용공연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과정에서 창의성과 상상력이 생성되고 생활의 활력소를 가지게 된다. 무용에 대한 접근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무용을 통해 예술적 역량을 높이는 일은 체험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과 이에 기반한 교수방법이 필요하다.

셋째, 무용교육방법의 적용에 있어 때로는 모방적 때로는 창조적인 접근이 유연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현재 문화예술교육의 진흥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적 무용교육방법은 창조적 재현과 모방적 재현의 관점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다. 무용은 일반적으로 신체를 통하여 연출되어지는 공연예술과 취미나 창작활동이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사회무용으로 나뉜다. 문화예술교육에 기반을 둔 무용교육은 경우에 따라서는 모방을 통하여 창의적의 표현활동을 거쳐 자유로운 인간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창조적 과정을 거쳐 새로운 자기표현과 연출의 방식을 습득하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특히 오늘날은 예술이 전문가들의 전유물로만 한정되지 않고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로 발전하고 있다. 이처럼 일반인들 또

한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전문가를 위한 교육방법에 기반한 무용교육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에 기반한 새로운 교수학습방법의 고안이 필요하다. 단지 수동적인 감상자나 향유자로서의 역할만 하던 일반인들이 능동적인 무용 창작자로서의 역할로 전이되면서 이들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교수법이 대두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단순한 모방을 통한 무용교수법을 넘어서는 새로운 교수방법이 요구된다.

넷째, 향후 무용교육방법은 Ricoeur의 삼중 미메시스 이론을 적용하여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분석·적용할 필요가 있다. 무용에서 가르치는 자의 행동과 동작은 학습자에게는 모방의 대상이 된다. 여기서의 모방은 복사의 개념이 아닌 또 다른 창의적 재형상화이다. 학습자는 재현과정을 통해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 또 다른 모델을 탄생시키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무용교육에서 보여줄 수 있는 신체성과 연행성에 기초한 예술교육적 특징이다. 인간은 무용교육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성에서 서로 상호작용하고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미메시스적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가지게 하여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신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게 만든다. 또한 무용을 통한 학습과정을 통해 개인의 일상생활과 직업생활에서도 신체적, 연행적 연출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 무용교육은 예술적인 특성을 넘어서 인간의 상호작용의 역활의 기저가 될 수 있다. 인간은 무용교육을 통해 습득하는 미메시스적, 미적 능력을 통해 미성숙에서 성숙의 단계로 성장하게 된다.

#### ■ 참고문헌

- 리퍼르, P.(2012). 『시간과 이야기 1』. 김한식 · 이경래(역). 서울: 문학과 지성사.
- 몰렌하우어, K.(1983). 『가르치기 힘든 시대의 교육』. 정창호(역). 서울: 삼우반
- 이병준 외(2010). 『문화역량과 문화예술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플릭, U.(2011). 『질적 연구방법』.(임은미 · 최금진 · 최인호 · 허문경 · 홍경화(역). 서울: 한울아카데미.
- Gebauer, G. & Wulf, Ch.(1996). Mimesis: Culture-Art-Societ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김미량(2012). 관계적 자아 정체성 개발을 위한 리피르의 Narrative 정체성 이론 연구. 『기독교 교육 논총』, 32: 323-356.
- 김수련(2011). 폴 리피르의 미메시스 이론으로 본 영화적 재현방식 고찰. 『한국콘텐츠학회』, 12(8): 146-155.
- 김영미(2010). 무용참여 확대를 위한 무용 사회화 연구의 방법과 방향. 『한국무용과학학회』, 21: 1-19.
- 김한식(2009). 미메시스 해석학을 위하여. 『불어불문학연구』, 79: 149-189.
- 김현주(2009). 통합적 방법을 적용한 무용교육의 발전적 제한: 교수, 학습 전략을 위한 방향 제시 및 모형 구축. 『대한무용학회』, 59: 72-100.
- 김혜정, 정은주(2010). 일반인의 무용공연 관람동기가 정서경험과 무용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과학회』, 21: 1-19.
- 유기환(2010). 미메시스에 대한 네 가지 시각: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벤야민, 리피르. 『세계문학비교연구』, 33: 375-402.
- 윤성우(2012). 미메시스, 재현 그리고 해석. 『해석학연구』, 14: 207-234.
- 이병준(2006). 예술교육에 대한 교육학적 고찰. 『미술교육논총』, 20(2): 1-22.
- 이병준(2007). 연출과 퍼포먼스연구에서 바라보는 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연구』, 2(1): 103-116.
- 이병준(2011). 교육적 범주로서의〈전시행위〉에 관한 이론적 탐구. 『문화예술교육연구』, 6(1): 1-44.
- 이병준(2013). 문화인지와 문화적 학습의 이론적 모델에 대한 연구: 크리스토프 볼프(Ch. Wulf)의 이론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연구』, 8(1): 1-17.
- 정인서·정진철(2008). 조직 내 인간행동의 미메시스 현상과 합리성에 관한 소론. 『한국인사 관리학회』, 2: 163-174.
- 정희자(2012). 사회적 소통을 위한 무용예술교육 현황 및 사례 분석연구. 『예술교육연구』, 10(2): 81-98.
- 한혜리(2005). 무용인식의 구조와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16:

119-213.

한혜리(2011). 예술통합 무용교육 방법론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22: 21-31.

논문투고일	2013년	10월	15일
심사일		10월	20일
심사완료일		10월	29일

**Abstract****The Dance Education Methodology Research Based the Mimesis Theory**

- Revolved around the Triple Mimesis theory of Paul Ricoeur -

Byung Jun, Yi · Yu Ree, Lee

*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 · Ph. D. Student Department of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Studies on MIMESIS have been limited by aesthetic point of view, but various studies are recently conducted by interdisciplinary approach. Based on MIMESIS theory, dance education which is one sector of art education is popularized to inner expression by body beyond the range of art due to the expansion of humane cultural awareness. Since 2000, general people have participated autonomously and dance education has been actively conducted within institutional condition through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ulture and art education promoted by government. From angles of dance education method and teaching/learning method, children can improve their individual identity through the expressive learning by play and general adults can improve theirs through the process to imitate existing art works. And, experts or soon-to-be juniors make Mimetic learning during the processes that seniors practice and roles are played on the stage. The process to learn art education expands aesthetic thoughts under the background of dance appreciation, criticism, performance audience and theoretical knowledge. In dance education, Mimetic learning will give emotional satisfaction by dance learning with learner's new experience, relationship with others, physical expression, etc. In addition, dance education will be the base of roles for humane interaction by getting out of the artistic characteristics through all of those things. Therefore, dance education which is conducted generally in school and society has been studied by various education methods as Mimetic learning process by objects according to the phenomenon of social paradigm. The discussion about dance education method shows triple Mimesis stages based on Mimesis of French analysis scholar, Ricoeur, that I stage Mimesis is teacher's experienced behavior, II

stage Mimesis is learner's imitation and III stage Mimesis is reappearance of imitation. So, it shows the process that learners make triple Mimesis learning through the dance education. Therefore, teacher's empirical knowledge and capabilities in dance education make an effect on learners' ego, can bring structural change of behavior and show the study on capability of dance education methodology is necessary.

keywords: Dance Education(무용교육), Dance Education Method(무용교육방법), Mimesis(미메시스), Mimetic Learning(미메시스적 학습), Culture & Arts Education(문화예술교육)